



2012 엑스포 여수로... 불붙은 유치전

3개도국 지원 약속 꼭 지켜라

호남 당심을 잡아라

이명박·박근혜 내일 무안·신안 재보선 유세대결

‘신의’ 잃으면 ‘표’도 잃는다

중남미국 원조 약속 깨져 ‘2002 실패’ 쓴 맛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면 회원국에 끝까지 신의를 지켜라.”

201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후 관계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이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회원국 투표가 치러지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한국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4차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한국(34)은 중국(54)에게 20표차로 고배를 마시고 만다.

결선 투표 전까지의 투표에서도 한국의 득표는 중국에 뒤졌다.

한국은 2차투표에서 34표를 얻은 후 더 이상 많은 지지국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1차에서 36표를 얻은 후 꾸준히 득표가 늘어 2차 38표, 3차 44표, 최종 54표로 한국을 따돌렸다.

이에 대해 당시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들은 지지국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유럽지역 국가의 상당수가 당시 개최후보지인 상하이의 높은 인지도와 개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쪽에 기울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시 BIE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제의’가 중국보다 빈약했거나, 그나마 일부는 끝까지 지켜지지 않아 등을 돌렸다는 해석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즉 중남미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따라 지지국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 중 당초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들이 양국의 제의를 저울질해 중국쪽에 기울었던

나, 한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등을 돌렸다는 풀이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전 당시 우리나라가 중남미를 비롯한 약소국가에게 제의했던 조건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당시 한국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제공했던 다양한 원조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오랫동안 세계박람회 유치 업무를 다뤘던 한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BIE회원국에 대해 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부탁하며 일정 규모의 지원을 제의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 경제 원조의 경우 대략 5만~10만달러 수준이다. 무리한 액수를 요구할 경우 일단 지지를 당부하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인데 최종 순간 합의가 안돼 표를 확보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2010 세계박람회 유치 경합시 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은 중국의 텃밭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해당국가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져 표로 연결

2010 세계 박람회유치 득표결과

순위	국가	투표자수	한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기타
1차		28	36	12	6	2	4	
2차		34	38	10	5		1	
3차		32	44	12				
4차		34	54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국가를 확보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 제의가 불가피하고, 한 번 이뤄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끝>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지난 2002년 12월 3일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총회가 열린 모나코 그리말디 포룸에서 한국 대표단인 전윤철 부총리, 고 박태영 전남지사, 김호식 해수부장관, 김충석 여수시장(왼쪽부터)이 한국 홍보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수는 이날 투표에서 상하이에 34 대 54로 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특정기업 위한 특혜” “지역경제 위한 사업”

민노당-전남도 F1 대회 설전

“기업에 대한 특혜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업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놓고 민노당과 전남도의 설전이 뜨겁다

민노당은 17일 F1 대회에 대한 ‘4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F1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오는 25일 국회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전남도가 즉각 맞박치고 나섰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17일 “기업만을 위한 F1 도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월 전남도와 F1 대회 법적 주체인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과의 경기유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남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대회 개최 전에 도민 혈세로 756억원의 개최권료 지급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의 문제점으로 ▲계약기간 추가 5년 연장의 불확실성 ▲경주용 자동차 등의 불투명 계획에 대한 의구심 ▲계약 파기의 일방적 위험 부담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F1특별법 통과 등 원만한 대회 개최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전남도가 강한 톤으로 민노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진보 전남도 F1지원과장은 “민노당이 문 제삼과 있는 내용들은 전남도가 천여명 의원실에 보낸 계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윤 과장은 경기유치 전에 지불하는 개최권료 756억원이 2년차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주차량 등의 수송 책임은 FOM(Formula One Management)에 있고 교통 및 숙박대책은 대회 개최전까지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람회·평창 동계 올림픽

아시아나항공 유치 지원 나서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 기내지인 ‘Asiana Culture’에 국문과 영문으로 된 여수세계박람회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홍보 기사를 게재하고, 기내 영상물과 옥외 광고물을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여수발 제주행 정기편을 매일 1회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기내 홍보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실사평가단이 여수를 방문했을 때 세계기를 할인했다. /연합뉴스

김근태 前의장 오늘 광주 방문 우리당 후보 지지 호소

무안·신안, 후보자 토론회 공천·전력·이적 날선 공방

4·25 재보선 현장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8일 광주 지역을 방문, 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지방분 광주시당 위원장, 김재균 전 광주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광주공원, 백운시장, 양동시장, 풍암동 4거리, 염주 4거리 등을 돌며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장은 유세 도중인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무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17일 목포KBS에서 열린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전략 공천과 비리 전력, 정당 이적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무소속 이재현 후보는 민주당 김흥업 후보와 상호토론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절차적으로 하자 있고 떳떳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에 의한 정당한 절차이며, 정계개편 국면에서 대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민선 군수 재직시 뇌물수수로 수감생활을 한 전력을 지적했고, 이 후보는 강 후보의 당직 변경에 대해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었던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민주당 김흥업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무안아카데미·경실련무안군민회·무안군청년연합회는 “오는 19일 송달문에 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김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안아카데미 회원들은 17일 무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린 목포KBS 정문에서 김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거듭 촉구하며 20여분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한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리 가족 활력에너지

비콤씨

아침·저녁 하루 두알

우리가족의 힘- 비콤씨

비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90-1658 www.kfda.go.kr)